

<표 IV-3> 학습과정의 수업계획서

1. 강의개요							
학습과목명	전공실기V	학점	3	교·강사명		교·강사 전화번호	-
강의시간	5	강 의 실	-	수강대상	-	E-mail	-
2. 교과목 학습목표							
<p>보컬의 기본기를 향상시키고 개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개발하여 실용음악의 보컬리스트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p> <p>전공실기 V에서 2주차부터 6주차까지는 주교재로 선택한 ‘버클리 보컬의 정석’을 통하여 자세와 호흡, 목소리 위밍업 등 소리의 훈련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습해보고 8주차에서 14주차까지는 부교재1로 선택한 ‘김명기 보컬 트레이닝’을 통하여 어택과 목에서 힘 제거하기, 흉성과 중성 또한 공명 당기기와 보이스 라운딩과 같이 실제 가창에 필요한 테크닉들을 실습한다.</p>							
3. 교재 및 참고문헌							
<p>주교재: Anne Peckham(2015), 버클리 보컬의 정석 워크북, SRMUSIC 부교재1: 김명기(2015), 김명기 보컬 트레이닝, 글로벌콘텐츠 부교재2: 정영주(2014), 셀프스터디 보컬 트레이닝, TONIC</p>							
4. 주차별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별	차시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 주	1	*강의주제 : 오리엔테이션 및 교재 공지					
	2	*강의목표 : 수업 방향 제시 및 학습자 능력평가					
	3	*강의세부내용 : 한 학기 동안 진행될 학습내용					
	4	을 소개하고 교재를 공지하며 과목에 대한 질의문					
	5	답 시간을 갖는다. 또한 학습자의 보컬직무능력을 평가한다.					
		*수업방법 : 강의, 실습					
제 2 주	1	*강의주제 : 자세					
		*강의목표 : 바른 자세인 중립 자세를 실습한다.					
		*강의세부내용 :					
		몸의 모든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게 되는 중립					
		자세					
	2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선다.					
		무릎을 구부렸다가 다시 다리를 편다. 이 때 무					
		릎은 경직되지 않고 부드러워야 한다.					
		엉덩이 근육을 조이고 복부 근육을 안으로 밀면					
	3	서 숨을 내쉰다. 등은 곧게 편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근육을 이완시킨다. 이 때 골반을 살짝 뒤로					
		젖힌다. 단, 등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두 팔꿈치를 뒤로 밀고, 어깨를 뒤로 젖히면서					
		가슴을 앞으로 확장시키듯 편다. 그런 다음 상체					
		를 편안하게 이완시키면서, 가슴이 적절히 높은					
		위치에 있도록 유지한다.					
	4	어깨를 귀 쪽으로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어깨에 긴장이 없이 편안하게 떨어뜨					
		린 자세를 유지한다.					
		마치 천장에 머리가 닿을 것처럼 척추를 위로					
	5	쭉 길게 늘인다. 그런 다음 어느 정도 편안한 자					
		세로 돌아오되, 척추가 위로 길어진 느낌은 유지					
		하도록 한다.					

제 3 주	1	<p>*수업방법 : 강의, 실습 *강의주제 : 호흡 *강의목표 : 깊은 호흡에 대하여 실습해 본다. *강의세부내용 :</p>	
	2	<p>바르게 서서 허리의 둘레를 확장시키면서 숨을 들이마신다. 이 때 겨드랑이, 어깨를 비롯한 가슴 윗부분은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p>	
	3	<p>숨을 내보내기 위해서 복부 근육을 살짝 수축시킨다. 이를 통해 횡격막이 폐 쪽으로 올라가며 폐에서 공기를 내보낼 수 있게 된다.</p>	
	4	<p>이 때, 몸은 열린(open)느낌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상체가 숙여지거나 가슴이 내려앉지 않도록 한다. 이 때 복부 근육에 무리하게 힘을 주게 되면 숨을 억지로 빨리 내쉬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p>	
	5	<p>날숨의 과정은 부드럽고 안정적이어야 하며, 숨을 내 쉬는 동안 몸은 열린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업방법 : 강의, 실습</p>	
제 4 주	1	<p>*강의주제 : 목소리 위밍업1 *강의목표 : 목소리를 위밍업 하는 실습을 진행한다. *강의세부내용 :</p>	
	2	<p>립 트릴/혀 트릴 입술 또는 혀를 떨며 내는 소리를 낸다. 립 트릴/혀 트릴을 하기 위해서는 호흡의 흐름이 고르고, 턱이 편안해야 한다. 이 연습은 보다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p>	
	3	<p>이 연습은 스케일 또는 슬라이딩 패턴을 활용하여 연습할 수 있다. 슬라이딩 혹은 사이렌 소리</p>	
	4	<p>시작한 음에서부터 음을 부드럽게 이어 미끄러지듯이 높은 음 또는 낮은 음으로 이동하며 소리를 낸다. 이 때 모음 혹은 허밍을 사용하여 소리를 낸다.</p>	
	5	<p>후두 근육을 풀어 주어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며, 가창 시 작용하는 근육들을 스트레칭 할 수 있다. *수업방법 : 강의, 실습</p>	
제 5 주	1	<p>*강의주제 : 목소리 위밍업2 *강의목표 : 목소리를 위밍업 하는 실습을 진행한다. *강의세부내용 :</p>	
	2	<p>허밍 윗니와 아랫니를 살짝 벌린 채 입술을 닫고 내는 소리다. 소리가 나는 동안 입술, 코, 얼굴, 볼 부위에 진동을 느낄 수 있다. 허밍 연습시 슬라이딩 패턴을 활용할 수 있다.</p>	

	3	<p>허밍을 할 때 느껴지는 진동(buzzing)을 통해 공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공명은 목소리에 성량과 음색을 더해주며, 보다 안정되고 분명한 소리를 낼 수 있게 한다.</p> <p>한숨 쉬기</p>	
	4	<p>마치 하품을 할 때의 느낌을 시작한다. 입모양을 ‘아’ 혹은 ‘어’ 로 만들어 중간 음에서 낮은 음으로 슬라이딩 하며, 이 때 호흡은 뱉어 내듯이 하며 소리를 낸다.</p>	
	5	<p>하품을 할 때의 느낌을 통해 연구개를 살짝 들어 올리는 연습을 할 수 있다. 또한 한숨 쉬듯 소리 내는 하강 슬라이딩을 통해 목소리를 편안하게 내는 연습을 하게 되며, 근육 또한 스트레칭 된다.</p> <p>*수업방법 : 강의, 실습</p>	
제 6 주	1	<p>*강의주제 : 소리 훈련</p> <p>*강의목표 :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한 소리 훈련을 실습한다.</p> <p>*강의세부내용 :</p> <p>장음 연습</p> <p>중음역대의 맑은(호흡이 섞이지 않은) 소리를 느린 템포로 16박자 동안 내도록 한다. 이 소리는 중음역대에서 큰 성량의 소리여야 한다. 이 연습은 또한 ‘작게-크게-작게’ 와 같이 다이내믹 연습으로 응용할 수 있다. 장음 연습 시 음정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p>	
	2	<p>스타카토 연습</p> <p>음정들을 호흡을 조금씩 사용하며 한 호흡으로 불러본다. 이 연습은 한 가지 음정 혹은 아르페지오 및 다양한 스케일 패턴으로 응용하여 연습할 수 있다.</p>	
	3	<p>아르페지오 연습</p> <p>스케일을 구성하는 음정으로 구성된 패턴을 불러본다. 연습에 사용되는 아르페지오의 구성음은 주로 메이저, 마이너, 펜타토닉 패턴으로 만들어진다.</p>	
	4	<p>발음 연습</p> <p>다섯 개의 주요 모음인 ‘아’, ‘에’, ‘이’, ‘오’, ‘우’ 에 다양한 자음을 더하여 멜로디 패턴에 맞춰 불러본다. ‘마’, ‘루’, ‘노’, ‘씨’, ‘야’, ‘네이’ 등 아무런 의미 없는 음절을 응용하여 만들어 불러본다.</p>	
	5	<p>다이내믹 연습</p> <p>느린 템포로 8박자 동안 중음역대의 멜로디를 불러본다. 작게 시작하여 점점 크게 그리고 다시 작게 조절해 본다. 음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면서 조심스럽게 볼륨을 조절하여, 목소리의 강약이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한다.</p> <p>음역 확장 연습</p>	

		<p>빠르게 움직이는 스케일 혹은 아르페지오 패턴을 불러본다. 이때, 가장 높은 음과 가장 낮은 음에서는 오래 머물지 않고 스치듯이 가볍게 부르도록 한다.</p> <p>*수업방법 : 강의, 실습</p>
제 7 주	1	<p style="text-align: center;">중간고사</p>
	2	
	3	
	4	
	5	
제 8 주	1	<p>*강의주제 : 어택</p> <p>*강의목표 : 나가는 소리(어택)을 키우는 실습을 한다.</p> <p>*강의세부내용 :</p> <p>양옆으로 다리를 약 30cm 정도 벌리고 몸에 힘을 푼 상태에서 준비를 한다.</p> <p>정확한 자세에서 호흡을 들이마신다.</p>
	2	<p>오른손의 손끝을 눈앞의 30cm 앞에 둔다. 손의 각도는 45도 정도가 된다.</p> <p>오른손을 귀에 붙이듯이 당기면서 ‘이’ 라는 발음을 한다. 이때 ‘이’ 발음은 ‘예’ 발음을 하기 위한 예비 발음이므로 입술을 양옆으로 최대한 찢어 발음한다.</p>
	3	<p>오른손을 앞쪽으로 스냅을 주듯이 튕겨주며 스타카토로 ‘예’ 발음으로 명치를 튕겨 내며 호흡을 순간적으로 잡는다.</p>
	4	<p>튕겨 준 상태에서 호흡과 입 모양을 정지한 다음 손 모양과 입 모양을 유지하면서 30초에서 1분 정도 지탱하다가, 지치면 풀어 준다.</p> <p>1분에서 2분 정도 쉬고 다시 반복한다.</p>
	5	<p>입 모양은 입 꼬리가 올라가듯이 충분히 찢어주고 턱의 모양은 손가락을 가로로 해서 두 개가 들어갈 정도로 벌려주며 혀바닥은 힘을 빼고 아래 치아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내려놓으면 된다.</p> <p>*수업방법 : 강의, 실습</p>
제 9 주	1	<p>*강의주제 : 목에 힘 제거</p> <p>*강의목표 : 목에서 힘을 제거하는 실습을 한다.</p> <p>*강의세부내용 :</p> <p>양옆으로 다리를 약 30cm 벌리고 몸에 힘을 푼 상태에서 준비를 한다.</p>
	2	<p>목과 턱 경계선을 엄지손가락으로 잡아 준다. 여기서 엄지손가락은 강하게 누르지 말고 가볍게 지긋이 대준 상태에서 턱을 잡아 준다.</p>
	3	<p>손을 눈앞의 45도 각도로 가져간다.</p> <p>왼손은 턱을 잡아 주고 오른손은 어택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준다.</p>
	4	<p>오른손을 뒤로 당겨 앞으로 스냅 즉, 어택을 이용하여 소리를 낸다. 그때 발음은 비성의 끝소리</p>

	5	<p>‘어,엥’ 발음을 하며 어택과 소리를 일치시켜 소리를 낸다.</p> <p>입 모양은 비성의 입 모양과 같게 해주고 혀는 아래 치아에 붙이듯이 해준다.</p> <p>‘어,엥’ 이라는 발음을 이용하여 20초를 끌어준다.</p> <p>*수업방법 : 강의, 실습 *강의주제 : 흥성1 *강의목표 : 흥성을 실습한다. *강의세부내용 :</p>	
제 10 주	1	<p>양옆으로 다리를 약 30cm 벌리고 몸에 힘을 푼 상태에서 준비를 한다.</p> <p>정확한 자세에서 호흡을 들이마신다.</p> <p>정확한 자세와 정확한 어택을 이용하여 찢는 입 모양으로 ‘에’ 라는 발음으로 한다. 여기서 어택을 할 때 호흡 쪽에 강한 힘을 유지하면서 어택을 사용하면 안 된다. 흥성 연습은 어택을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강약이 되게 소리를 내고 소리 유지 시에는 약의 소리로 유지하면서 소리를 내야한다. 소리가 밀려있다면 흥성을 할 때 가슴 쪽으로 소리를 당겨야 하는데 밀려 있는 소리는 웬만해서는 당겨지지 않기 때문이다.</p>	*과제물제출
	2	<p>정확한 자세와 정확한 어택을 이용하여 찢는 입 모양으로 ‘에’ 라는 발음으로 한다. 여기서 어택을 할 때 호흡 쪽에 강한 힘을 유지하면서 어택을 사용하면 안 된다. 흥성 연습은 어택을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강약이 되게 소리를 내고 소리 유지 시에는 약의 소리로 유지하면서 소리를 내야한다. 소리가 밀려있다면 흥성을 할 때 가슴 쪽으로 소리를 당겨야 하는데 밀려 있는 소리는 웬만해서는 당겨지지 않기 때문이다.</p>	
	3	<p>‘에’ 발음에서 소리를 끌어주다가 ‘아’ 라는 발음으로 이동을 한다. 여기서 ‘아’ 라는 발음은 다음에 나오는 ‘이’ 발음을 하기 위한 그저 보조 역할이 전부이다. 혀의 위치는 앞서 말한 ‘에’ 의 발음처럼 아래 치아에 붙어 있는 상태이면 좋다.</p>	
	4	<p>‘아’ 발음에서 ‘이’ 발음으로 발음을 이동할 때 혀는 양쪽 위 어금니에 붙이듯이 혀를 당기면서 말아 위 치아에 붙인다. 여기서 혀를 당겨줄 때 혀 앞쪽 부분이 위로 들리듯이 당겨주는 것이 아니라 혀 앞쪽 부분이 밑으로 향하여 뒤로 당겨지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p>	
	5	<p>흥성 소리를 낼 때 소리를 밀지 말고 당겨주듯이 소리를 내게 한다.</p> <p>발음을 이동할 때 소리를 끊어 주듯이 발음을 하지 말고 소리를 연결시키며 만든다.</p> <p>‘이’ 발음을 할 때 호흡은 등 쪽 아래에 호흡을 내려 준다는 느낌으로 해준다.</p> <p>*수업방법 : 강의, 실습</p>	
제 11 주	1	<p>*강의주제 : 흥성2 *강의목표 : 흥성 띄우기를 실습한다. *강의세부내용 :</p> <p>양옆으로 다리를 약 30cm 벌리고 몸에 힘을 푼 상태에서 준비를 한다.</p> <p>정확한 자세에서 호흡을 들이마신다.</p>	
	2	<p>‘에’ 라는 발음을 하며 육성에 어택을 한다는 느낌으로 튕겨 주듯이 약에서 소리를 끌어준다.</p>	

	3	<p>어택은 흥성 연습 때와 동일하게 해준다. 그리고 발음 또한 동일하게 유지해 준다. 어택이 강하게 밀려 있는 상태에서는 소리를 유지하지 말아야 한다. 이 연습은 호흡을 띄우는 연습이기 때문에 어택에 힘이 들어가 있다면 소리를 띄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p> <p>‘예’ 에서 ‘이’ 라는 발음으로 소리가 이동할 때에는 어택을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당겨서 들어주듯이 소리를 띄워 준다. 즉, 소리의 방향은 ‘예’ 는 직선 방향이며 ‘이’ 는 뒤쪽으로 곡선을 그리다 위로 향하는 방향이다. 또한 ‘이’ 발음을 할 때의 혀 모양은 흥성의 ‘이’ 발음처럼 말아서 당겨주지 않아도 된다. 즉, 혀의 앞부분은 치아에 닿아 있고 혀의 뒤 뿌리 부분이 약간 위로 들린 모습이면 된다. 흥성 띄우기에서 혀가 말리도록 연습하게 되면 ‘이’ 발음, 혹은 그와 유사한 발음 외의 다른 발음으로 중, 고음을 할 때도 혀가 말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발음이 많이 뭉개지게 되고 높은음에서 꼭 막힌 것 같은 소리가 나기도 하기 때문이다.</p>
	4	<p>소리가 ‘이’ 음으로 띄운 듯이 들려있다면 가벼운 소리로 유지를 하게 한다.</p> <p>*수업방법 : 강의, 실습</p>
	5	<p>소리가 ‘이’ 음으로 띄운 듯이 들려있다면 가벼운 소리로 유지를 하게 한다.</p> <p>*수업방법 : 강의, 실습</p>
제 12 주	1	<p>*강의주제 : 중성</p> <p>*강의목표 : 육성에서 힘을 뺀 소리인 중성을 실습한다.</p> <p>*강의세부내용 :</p> <p>양옆으로 다리를 약 30cm 벌리고 몸에 힘을 푼 상태에서 준비를 한다.</p>
	2	<p>정확한 자세에서 호흡을 들이마신다.</p> <p>오른손의 손끝을 눈앞의 30cm앞에 둔다. 손의 각도는 45도가 된다.</p>
	3	<p>오른손을 귀에 붙이듯이 당기면서 ‘이’ 라는 발음을 한다. 이때 ‘이’ 발음은 ‘예’ 발음을 하기 위한 예비 발음이므로 입술을 양옆으로 최대한 짝여 발음한다.</p>
	4	<p>오른손을 앞쪽으로 스냅을 주듯이 튕겨주며 스타카토로 ‘예’ 발음으로 명치를 튕겨 내며 호흡을 순간적으로 잡는다. 처음의 손의 45도 각도 다시금 이동한 상태가 된다.</p>
	5	<p>어택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소리에 힘을 빼도록 한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발성에서의 강을 10의 힘이라고 할 때 약의 소리가 6~7 정도의 힘을 유지한다면 중성을 연습함에 있어서는 약소리는 3~4 정도 완전히 힘을 뺀다는 느낌으로 음을 잡은 다음 그 음을 30초 정도 끌도록 한다.</p> <p>힘을 뺀 때에는 최대한 육성의 소리에서 비성의 위치로 이동하도록 소리를 유지한다.</p> <p>*수업방법 : 강의, 실습</p>

제 13 주	1	<p>*강의주제 : 공명 당기기</p> <p>*강의목표 : 곡선을 이용하여 음을 위로 끌어 올리는 실습을 한다.</p> <p>*강의세부내용 :</p> <p>양옆으로 다리를 약 30cm 벌리고 몸에 힘을 푼 상태에서 준비를 한다.</p> <p>정확한 자세에서 호흡을 들이마신다.</p>
	2	<p>정확히 비성 위치에서 어택으로 ‘어’ 라는 발음을 살짝 띄워서 잡고 끌어준다.</p> <p>어택으로 ‘어’ 발음을 잡을 때 절대로 크고 두껍게 소리를 잡으면 안 된다. 만일 그렇게 소리를 잡으면 소리를 당길 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당기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첫소리이다. 첫소리를 잘 잡아야 그 소리를 당길 수가 있다. 무거운 소리를 당기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소리가 이동을 편하게 하는 것이다. ‘어’ 발음은 어택 후 제자리에 서있어야 한다. 절대로 밀려선 당길 수가 없다. 또한 ‘소리를 띄운다’ 는 것은</p>
	3	<p>흉성의 능력을 생각하면 된다. 흉성에서 흉성 띄우기는 당겨서 띄워 소리 내는 연습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처음 잡는 소리인 비성 소리는 꼭 진성으로 위치를 유지해줘야 한다. 반듯이 진성이면서 비성이어야 한다. 첫소리 잡을 때 자신이 말하는 음력보다 조금 위이거나 말하는 음력 정도에서 비성을 잡아 준다.</p>
	4	<p>첫소리 잡은 위치에서 소리를 뒤로 살짝 당기면서 동시에 띄워준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소리를 당길 때 너무 심하게 목 뒤쪽으로 당기면서 띄우지 않게 한다.</p> <p>마지막 소리는 비성으로 마무리를 한다.</p>
	5	<p>비성으로 소리를 끝낼 때에는 소리를 지나가다가 세우는 느낌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만일 지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마무리하는 느낌의 비성으로 끝내게 되면 더 이상 음역 확장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여지가 있다는 느낌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하겠다.</p> <p>*수업방법 : 강의, 실습</p>
제 14 주	1	<p>*강의주제 : 보이스 라운딩</p> <p>*강의목표 : 소리를 굴리고 소리를 돌리는 실습을 한다.</p> <p>*강의세부내용 :</p> <p>양옆으로 다리를 약 30cm 벌리고 몸에 힘을 푼 상태에서 준비를 한다.</p> <p>정확한 자세에서 호흡을 들이마신다.</p>
	2	<p>첫소리 발음은 ‘라’ 라는 발음을 하는데 발음을 ‘라’ 라고 하지 말고 ‘루아’ 라고 한다. 빨리 하면 ‘라’ 라는 발음이 나올 것이다. 첫소리의 위치는 육성에서 비성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p>
	3	<p>‘라’ 로 소리를 낸다. ‘파’ 라는 발음으로 연습</p>

		을 시작해도 무방하다. ‘라’ 라는 발음이 비성에서 정확하게 들려있다면 앞으로 곡선을 그리면서 육성 쪽으로 서서히 발음을 이동시키면서 ‘아-애’ 의 발음을 사용한다. 소리의 위치가 내려올 때에는 각지지 않게 곡선을 그리며 매끄럽게 내려와야 할 것이다. ‘라’ 와 ‘아’ 와 ‘애’ 발음까지 하면서 앞으로 소리를 돌려주었다면 이제 ‘이’ 발음을 가슴 쪽으로 소리를 당기듯이 음을 내리면서 살짝 들리듯이 앞쪽 곡선을 그리며 음을 낸다. ‘잉’ 발음을 이용하여 비성 쪽으로 올려준다. 비성 때처럼 혀가 말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 치아에 혀를 붙이듯이 하면서 소리를 들어주면 된다. *수업방법 : 강의, 실습	
제 15 주	1		
	2		
	3	기말고사	
	4		
	5		

5. 성적평가 방법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출결	기타	합계	비고
30 %	30 %	20 %	20 %		100 %	

6. 수업 진행 방법

강의 및 실습

7. 수업에 특별히 참고하여야 할 사항

8. 문제해결 방법(실험·실습 등의 학습과정의 경우에 작성)

9. 강의유형

이론중심(), 토론, 세미나 중심(), 실기 중심(), 이론 및 토론, 세미나 병행(), 이론 및 실기 병행(✓), 이론 및 실험, 실습 병행(),